

서평

공간화된 ‘타자’들의 이야기: 주체/대상의 전치와 여/성 경험의 재구성

(막달레니공동체 용감한여성연구소, 2016. 『판도라 사진 프로젝트: 용산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사진과 이야기』. 봄날의 박씨.)

이나영*

I.

공간은 단순히 인간들의 삶을 담아내는 수용체가 아니다. 생생한 체험들이 겹겹이 쌓여 공간의 결을 만들고, 공간적 구성은 인간의 삶을 빚어낸다. 판도라 사진 프로젝트는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공간과 사람들의 기억을, 불안을, 좌절과 고통을, 기쁨과 소망을 당사자의 시선으로 기록하고 남기고자 하는 용감한 시도에서 출발한다. 그들의 과거를 현재를, 그리고 가늠되는 미래를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소환하고자 한다. 당사자들의 일상을, 일터를, 샵터를 이리도 생동감 있게, 아름답게, 그러나 아프게 기록한 책이 얼마나 있었던가.

성매매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당사자에 대한 과도한 희생자화와 낭만화 담론 사이, 어느 지점에 자신을 위치시킬 것인가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당사자와 연구자, 활동가들이, 이 프로젝트가, 아니 사람들이, 용산집결지라는 공간이, 각자의 삶에 상호 깊숙이 관여

* 중앙대 사회학과. nylee@cau.ac.kr

되면서 '장소'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울타리이자 집(속함, belongings)이 어떻게 부서져 가는지를, 성매매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 윤리적 잣대도 들이대지 않고 담담히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잘게 부서지고 뜯겨지고, 흩어지는 공간 구조물들에 대한 사진들은 마치 여성들의 지난 역사와 현실을 방증하는듯하여 어떠한 증언 자료 보다 필자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기에 이 책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여성들의 삶을 기록한 중요한 사료로 커다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II.

이 책은 어떤 논문보다 훌륭한 현장탐구 이론서이자, 내러티브를 시각화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도전을 실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다. 유동하는 정체성, 새롭게 구성되는 정체성, 말 건네는 하위주체, “환유적 자기묘사”(270쪽)라는 이론적 개념들이 '언니'들의 작업에서 무슨 의미가 있으랴. 자신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 낸 당사자들의 작업 앞에서 나는 그저 무장해제 된 한 사람의 독자로, 책상이 아닌 곳에서 이 책을 펼치고, 또 다른 공간에서 무심히 펼치게 된다. 이론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나를 해체하고 재조립하게 된다.

카메라를 든 '언니'들은 사진 속에서 울고 웃고, 사진 밖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시 그리고, 재설정함으로써 그렇게 탐험가가, 활동가가, 사진작가가, 인류학자가, 사학자가 되어 간다. 관찰의 대상에서 관찰의 주체가 되어 보는 놀라운 경험이 묻어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위치전이의 짜릿함을 느꼈다. 그간 관찰자로 현장을 보아 오던 '나'의 시선은 사진 속의 어딘가에 놓인 대상으로 역전되고, 그들은 카메라의 시선으로 나를 탐구한다.

이로써 나는 몇 가지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경험이 모든 이들의 경험을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분적 진실을 우리가 끼고 있는 현재의 안경으로 대면하고 대변하고,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다른 경험들이 숨죽여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현실을 다각도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색깔 없는 카메라 렌즈가 필요하듯, 현미경과 망원경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서있었던 풍경이 몇 십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온전히 조망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멋모르고 썼던 글이 어떤 부분적 진실을 담보하듯, 부분적 사실을 왜곡했는지 깨닫기까지 아주 많은 공부와 경험, 내공이 쌓여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선 채 다른 위치의 사람들과 손잡고 연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판도라 사진 프로젝트』는 이 모두를 다시 확인하게 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III.

우리의 체현된 시각이 늘 부분적이고 잠정적이듯, 경험은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갖지 않는다.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 주체를 설명하는 일정한 서사 속에 배열될 때만 비로소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경험은 언제나 이미 하나의 해석인 동시에 해석의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다 (Scott, 1999). 경험은 자명한 것이 아니며 주체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구성된다. 새롭게 해석되는 세계(관) 속에 어떤 경험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의미화 되며, 또 다른 것들은 강제적으로 삭제되거나, ‘망각’이라는 이름을 빌어 침잠하고 무의식 속에 부유한다. 따라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아니 타자화된 자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수 있

는 눈과 귀, 촉감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경험은 의미화될 수도 무의미한 공간 속에 재각인될 수도,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억이 드러내는 위치에 대한 인지일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의 다른 여성들과 같은 '여성'이라는 사실이 잊혀야 하고 지워져야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억압과 지배의 세밀한 그물을 포착해 낼 수 있는 인식론적 위치로 자리매김되는 순간,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온 많은 차별과 폭력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가부장적 세계를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전희경, 2008: 47).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은 이와 연관된다. 여성차별의 구조가 촘촘히 그물처럼 얽혀 있는 이곳에서 '언니'들이, 내가, 우리가 탈/성매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매매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의 역사를 현재의 정부정책과 등치시키는 일부 저자의 주장을 볼 때 서운함과 당혹감이 느껴진다. 주지하듯 성매매에 반대하는 많은 활동가-당사자들은 한국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오랜 기간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워왔으며, 현장에서 힘겹게 쟁투해 왔다. 그 역사는 일제 식민지 시기, 1970년대 유신정권의 엄혹한 때를 경유하여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을 지나,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므로 경험이 들리게 하는 장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작업은 식민지 공창제도, 미군 기지촌, 군사독재체제, 발전국가 체제 안에서 구축되고 전개되어 온 집창촌과 산업형 성매매라는 한국의 성매매 지형 안에 용산 집결지를 위치지우는 일일 것이다. 인신매매와 미성년 성매매, 성폭력, 강제노동, 모독, 멸시, 배제, 차별, 감금, 폭력, 임금착취, 심지어 살해 등 각종 인권침해로 점철된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이 기실 우리 모두의 공모로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용산의 사라져 간 공간과 존재들

www.kci.go.kr

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기에 나타난 특정 타자의 경험이 아니라,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여/성 보편의 문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당사자들의 이 아름답고 의미있는 작업을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 속에 위치시키고, 진보여성운동사에서 이루어진 반성매매여성운동과의 연결 고리 속에 사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차별적 구조와 시선을 바꾸고 여성들의 삶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있는 연구자의 역할 일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니’들이 잊고 싶은 “아픔과 상처투성이의 지난 과거”는(203쪽) 구조에서 떨어져 나가, 그저 여성 개인의 ‘소소한 일상’ 중 하나로 이해될 것이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전승할 자격조차 달라지는 우리 사회의 모순 또한 반복될 것이다.

IV.

끝으로 고된 삶을 살아내며 판도라 작업을 진행해 준 ‘언니’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이들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은 장소와 삶을 나눈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때로는 당사자들의 동무로, 때로는 공감된 청중이자 지지자로, 때로는 구조를 바꾸고자 노력하는 운동가로, 성매매 당사자의 삶에 깊숙이 연루되어 계신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과 활동가들의 땀과 노력에 이 지면을 빌어 경의를 표한다. 역사 속에 사라져간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새기고 싶다.

나는 성매매 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막달레나집을 몇 번 방문했었다. 친절한 활동가들과 ‘언니’들의 호기심어린 눈빛, 따듯한 공동식사, 같이 기도하던 가슴 벽참을 기억한다. <용감한여성연구소>가 펴낸 책들

의 독자로, 서평자로, 때론 막달레나집의 개인후원자로 늘 멀리, 그러나 함께 한다 여겼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110쪽) 나 또한 인사 없이 헤어짐에 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오만함에 대한 죄책감에 마음의 용서를 구했다.

세상은 어쩌면 “너무나 변하지 않는 지긋지긋한 곳”이지만 많은 이들의 작은 열망들이 켜켜이 쌓이면 다른 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이 책을 통해, 타자들의 타자인 우리는 많이 배우고 느끼고 성장해 갈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 전희경. 2003. 『오빠는 필요없다: 진보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이매진.
- Jeon, Hui-Gyeong. 2003. *Oppaneun Piryeopda: Jinboui Gabujangjee Dojeonhan Yeojadeul Iyagi*. Imagine.
- Scott, Joan W. 1999. "The Evidence of Experience." pp. 79-99 in Sharlene N. Hesse-Biber, Christina K. Gilmartin, and Robin Lydenberg (eds.). *Feminist Approaches to Theory and Method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